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8. 10.(수)
담당 부서	고용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	책임자	반 장 김수진 (044-202-7507)
		담당자	서기관 손우성 (044-202-7508)

정보기술(IT)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!

- 이정식 장관, 「미래노동시장 연구회」 위원들과 함께 주요 정보기술(IT) 기업의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만나, 현장의 목소리 청취
 - 건강권 보호와 함께,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야
 -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필요, 합리적·공정한 평가 기준이 중요

-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0일(수) 10:00, 주요 정보기술(IT) 기업의 근로자와 인사·채용 담당자들을 만나, 근로시간 제도, 임금체계, 정보기술(IT) 인력양성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.
- 이날 간담회는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, 카카오, 라인플러스, 쿠팡을 비롯하여 당근마켓, 토스가 참여했으며,
 - 합리적인 근로시간·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「미래노동시장연구회」 위원들도 참석했다.
-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, 우리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, 인구구조 변화 등 도전과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,
 - “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,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” 라며,
 - “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, 우리나라 대표 정보기술(IT)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다” 라고 밝혔다.

□ 이날 간담회는 근로시간 제도, 임금체계 등에 대해 근로자와 인사·채용 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□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한편, 제도 개편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과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.

□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

- ㄱ 근로자는 “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서 혹시나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”이라며, “과거 회사에서 선택근로제가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, 다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, 막상 도입된 이후에는 다들 만족도가 높았던 기억이 있다”라고 하면서, “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은 시대적 흐름인 것 같다”라고 했다.
- ㄴ 근로자는 “현재 선택근로제를 1개월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, 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만이 아닌, 근로자의 선택권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”라는 의견을 밝혔다.
- ㄷ 인사담당자는 “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을 높이는 것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의할 것”이라며 “다만 건강보호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, 얼마나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ㄹ 근로자는 “근로자 입장에서 ‘근로시간 저축계좌제’라는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”라며, “다만, 이 제도를 통해서 일이 몰릴 때는 일하더라도, 쉴 때는 근로자가 반드시 쉴 수 있도록 집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”라고 했다.
- ㄹ 인사담당자는 “개별 기업만의 특성이 있어 회사마다 자율권을 부여해줬으면 좋겠다”라고 하면서, “다만, 회사에 따라 기업문화 등 상황이 다를 수 있어,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

- 이직이 잦고, 근속기간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업종 특성상 정보기술(IT) 기업 대부분 연공성이 없다는 데에는 공통된 의견이었으며,

- B 근로자는 “직원들의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직무·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큰 것 같다” 라고 했다.
- A 인사담당자는 “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기술(IT) 기업 특성상 직무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” 라며, “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항상 고민이다” 라고 했다.
- ○ 인사담당자는 “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. 다만, 평가 과정의 공정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,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, 그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” 라고 말했다.
- 이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은 공감을 표했고, 역량과 성과를 나누어 평가하거나, 상시적인 피드백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기업별 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□ 이날 「미래노동시장 연구회」 위원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권순원 교수는

- “오늘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상당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” 라고 하면서,
- “정보기술(IT) 업종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, 되도록 여러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□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“현행 법은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” 라고 하면서,

- “오늘 해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깊이 참고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붙임 주요 정보기술(IT)기업 간담회 개요 및 인사말씀

붙임

주요 정보기술(IT) 기업 간담회 개요

☐ 일시: '22. 8. 10.(수), 10:00~11:30 (90분)

☐ 장소: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 (서울 중구 을지로 16))

☐ 참석자

○ (기업) 주요 정보기술(IT) 기업*의 근로자 및 인사·채용 담당자

* 네이버, 당근마켓, 라인플러스, 비바리퍼블리카, 카카오, 쿠팡 (가나다 순)

○ (고용부) 장관,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 등

☐ 세부일정

시간		내용	비고
10:00~10:03	3'	개회 및 참석자 소개	사회
10:03~10:08	5'	인사 말씀	장관
10:08~10:20	12'	주요 고용노동정책 소개	관련 과장
10:20~11:28	68'	자유 토론	참석자
11:28~11:30	2'	마무리 말씀	장관

□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.

- 오늘 우리나라 대표 IT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만나,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우리 노동시장은 도전과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.

-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, 엠지(MZ)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
- ‘일하는 방식’은 유연해지고,
고용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,
‘공정한 보상’과 ‘자기 결정권’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.
-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,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- 특히,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로 드러난 이중구조, 양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오랜 시간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로서, 비단 조선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
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
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우선, 기본적 근로조건이자 현장의 개선 요구가
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해서는
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'미래 노동시장 연구회'를
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했으며,
-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
추가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
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.

□ 오늘 간담회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,

-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과
인사·채용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
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.

□ 특히, 오늘 참석하신 기업들은

-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고,
개별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·보상체계를 운영하는 등
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,
-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이자,
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□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

- 핵심 미래산업인 IT분야에 필요한
근로시간 제도, 임금체계 등
그간 갖고 있었던 생각을
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□ 아울러, 최근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

디지털·신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,
인력양성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

- 정부도 「K-디지털 트레이닝」 사업과 같이
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,
이에 대해 건의하거나 바라는 점도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
-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은
향후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,
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□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

미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
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
같이 고민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

- 감사합니다.